

II. 문명의 발생과 고대 세계의 형성

주제 3) 오리엔트 세계에 등장한 여러 나라들

학 교	
학 번	
이 름	

1. 페니키아와 헤브라이

※ 아래의 그림 지도 중 각 국가의 위치에 해당하는 내용을 올바르게 붙이고 그 특징을 붙여 봅시다.

페니키아	헤브라이
○ 특징	○ 특징



다윗, 솔로몬왕 때 전성기를 맞이함

지중해 유역에서 해상무역을 통해 번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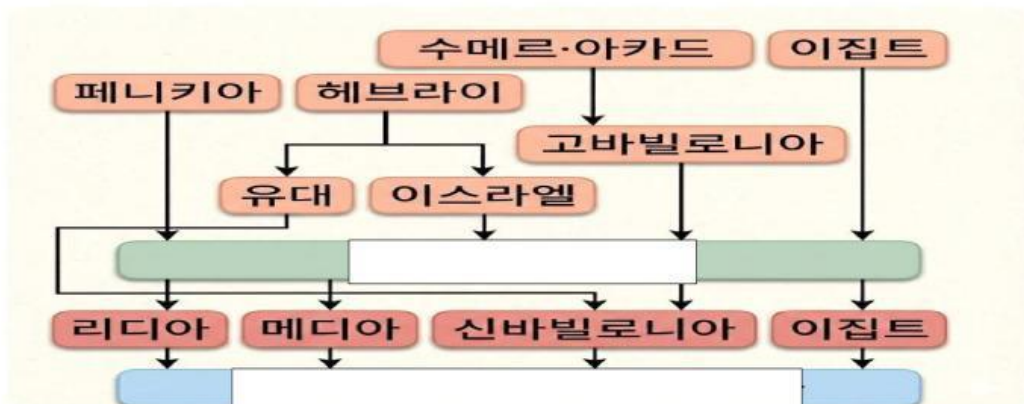
각 지역에 자신들의 식민지를 건설
(대표적인 식민지: 카르타고)

오늘날 알파벳의 기원이 되는
표음문자 사용

유일신 사상인 유대교 신봉

국가의 말기에 유대왕국과
이스라엘 왕국으로 분열

2. 오리엔트 지역의 분열과 통일과정



2. 오리엔트 지역의 최초의 통일국가 ()

1) ()의 오리엔트 지역 통치



"나는 반란을 일으킨 도시의 귀족들을 잡아 그들의 가족을 벗겨 성벽에 걸어 두었다. 일부는 기둥 위에 쌓아 올린 가미미 위에 산 채로 묻었으며, 일부는 기둥 주변에 말뚝을 박아 그 위에 꽃아 두었다. 나는 도시의 많은 포로들의 손과 발을 잘랐으며, 어떤 이들은 코와 귀를 베어버렸다. 수많은 군인의 눈을 멀게 했으며, 아이들은 산 채로 불태워 죽었다."

-아슈르나시르팔 2세(BC 883~859)의 비문 -

"나는 도시 전체를 파괴하고 불태웠다. 신전과 지구라트조차 벽돌 하나 남기지 않고 파괴하여 운하에 던져버렸다. 도시의 중심부를 헐쓸고 지나간 뒤에, 나중이라도 이곳이 도시였음을 알지 못하도록 그 자리를 물로 덮어버렸다."

- 센나케리브(BC 705~681)의 바빌론 파괴 기록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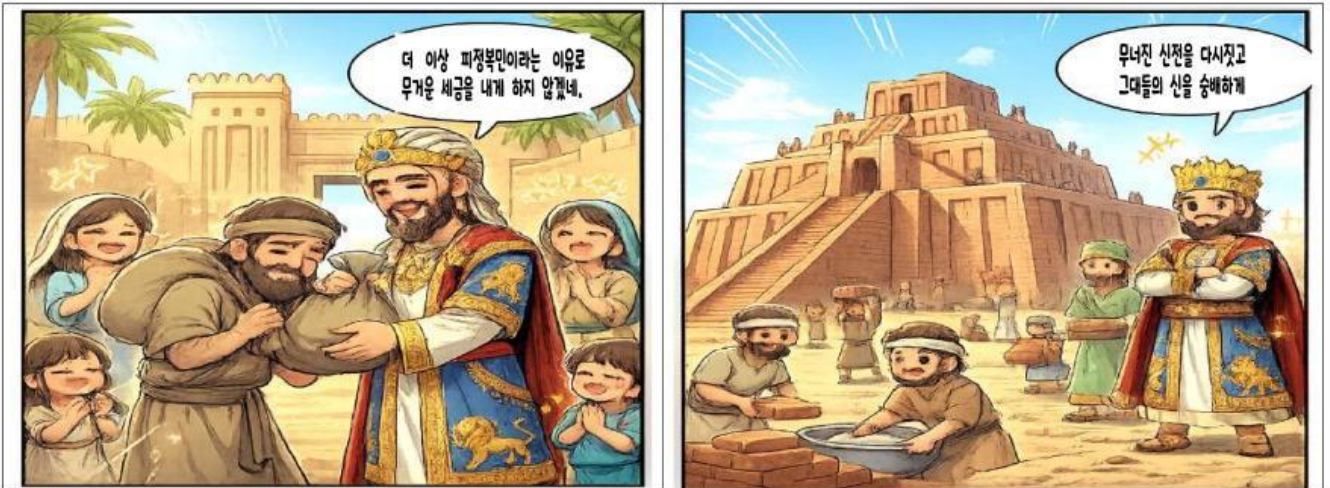
"나는 정복한 지역의 민족적 결속력을 깨뜨리기 위해 수만 명의 기술자와 귀족들을 제국의 반대편 끝으로 강제 이주시켰다. 고향을 떠난 이들은 반란을 도모할 힘을 잃었으며, 오직 왕의 명령에 복종하는 도구로 전락했다."

- 센나케리브(BC 705~681)의 바빌론 파괴 기록 -

2) 이러한 ()의 (관대한 / 강압적인) 통치는 피정복민의 (지지를 받아 / 불만을 가중시켜) (오랫동안 국가 유지 / 피정복민의 반발로 멸망)

3. 오리엔트 지역을 재통일한 국가인 ()

1) 키루스왕의 오리엔트 통일과 통일 정책



"나는 키루스, 세상의 왕, 위대한 왕... 나의 군대는 평화롭게 바빌론으로 행진했고, 나는 수메르와 아카드의 그 어떤 사람도 공포에 떨게 하지 않았다. 나는 바빌론 내부의 성소들과 모든 도시들의 안전을 돌보았다."

"나는 그들(바빌론 사람들)에게 지워졌던, 신의 뜻에 맞지 않는 멍에(압제적인 세금과 노역)를 벗겨 주었다. 나는 그들의 무너진 집을 고쳐 주었고, 그들의 고통을 끝내 주었다."

"티그리스강 저편의 신성한 도시들, 오랫동안 폐허로 변해버린 그곳의 신상들을 나는 원래의 자리로 되돌려 놓았고, 영원히 머물 수 있는 성소를 지어 주었다. 나는 그곳에 살던 모든 주민을 모아 그들의 거주지로 돌려보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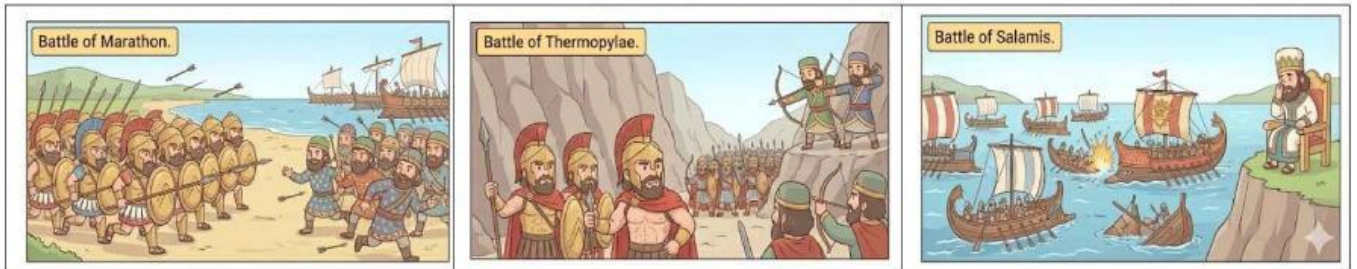
- 키루스 원통 -

2) () 때 전성기

※ 다음 그림의 내용 중 이 인물의 활동과 관련된 내용을 골라 붙이고 잘못된 내용은 오른쪽의 버리는 칸에 붙이세요.

						틀린 내용은 이곳에 붙여주세요.
						

3) 이후 지중해의 패권을 두고 ()와 경쟁 → ()와의 전쟁에서 처음에는 (승리 / 패배)



4) 멸망: 마케도니아의 ()의 침입을 받아 멸망

4. 페르시아의 문화

1) (국제적 / 폐쇄적) 문화

대리우스 1세가 건설을 시작한 수도 페르세폴리스의 궁전은 거대한 제국의 축소판이었다. 궁전으로 오르는 계단 벽면에는 페르시아 왕에게 조공을 바치러 온 23개 민족의 사절단이 부조로 새겨져 있다. 이들은 각기 다른 자기 민족 고유의 복장을 하고 특산물을 들고 있어, 당시 페르시아가 얼마나 넓은 지역을 아울렀는지 보여준다. 또한 궁전의 높은 기둥은 그리스 이오니아 양식의 영향을 받았고, 입구를 지키는 날개 달린 황소상은 아시리아의 영향을 받는 등 여러 문명이 혼합된 모습을 보인다.

2) 각종 공예 기술의 발달

페르시아는 금과 은, 유리로 만든 공예품이 매우 발달했다. 특히 동물의 머리나 몸통 모양으로 장식된 술잔인 '리톤(Rhyton)'이 유명하다. 사자, 황소, 독수리 날개를 가진 사자(그리핀) 등 역동적인 동물의 모습은 초원을 누비던 유목 민족의 기상을 보여준다. 이러한 문양은 서아시아 전통의 금속 세공 기술과 결합하여 매우 정교하고 화려하게 표현되었으며, 훗날 비단길을 통해 동아시아와 우리나라 신라의 공예품에도 영향을 주었다.

